

수간호사의 종합병원 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김 후 남

천안순천향대학병원

병원내 인력구조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50%이고 전체병원예산의 50~70%이상을 간호부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수간호사는 제일선 관리자로서 병원의 목적, 정책, 계획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시키고, 중간관리자로서 업무가 환자중심업무에 치중 되어있지 않고, 병원정책과 절차 즉 행정업무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조사는 우리나라 중부권 6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 105명을 대상으로 1997년 7월 21일 - 1997년 8월 9일까지 설문지를 배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참여에 관한 3인자는 “관리”, “계획”, “구조”로 명명하고 각각의 평균은 3.38, 2.69와 3.51로서 “구조”와 “관리”에 관련된 행정참여도가 양호하였으며, “계획”에 관련된 행정참여 정도는 보통이었다.

2. 관리인자는 병원규모가 6%, 계획인자는 자부심 정도가 3%, 구조인자인 만족도가 18%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만족도가 클수록 “구조”와 관련된 행정참여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3. 수간호사로서의 만족도와 자부심 정도는 연령, 경력, 종사예정 기간과 피어선상관계수 0.22이상의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만족도와 자부심 정도가 증가하고, 종사예정 기간도 평생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4. 간호조직형태별 만족도 및 자부심을 보면 진료보조 및 복합산하형일 때 평균 3.98, 진료부예속일 때 3.21, 독립형 및 독립하위형일 때 3.06으로 나타났다.

즉, 진료보조 및 복합산하형의 독립형태에서 근무할 때 만족도와 자부심 크기가 크며 병행하는 경향이다.

5.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수간호사들의 행정참여업무의 연구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병원조직형태 및 간호조직구조를 위해 필요한 연구임을 제안한다.